



古代日本の
「西の都」
-東アジアとの交流拠点-

오노조시 각 지역과의 교류가 낳은 문화와 기술의 집적지

고도의 토목 기술로 지어진 미즈키와 오노성을 지닌 오노조시. 세련된 제도 기술로 규슈의 가마업을 리드한 우시쿠비 일대의 가마 유적과 철기 생산과 한자 문화와 관련이 깊다고 알려진 젠이치다 고분군 등 마을에는 기술·문화 교류를 말해 주는 문화재가 펼쳐져 있습니다.

